



스위스 최고의 물가 호텔로 풍덩.

호수를 마주하고 쉬어가다

바다 없어도 돼요

광활한 호수와 웅장한 산에 둘러싸여 있으니깐요

100년 전부터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배산임수가 뭘지 보여주겠다 작심했어요

투숙객 전용 호수 공간에서 쉬어 가세요

미식 레스토랑은 기본이죠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것이야 말로, 여름다운 풍경이다. 제대로 된 스위스 여름휴가를 체험해 보고 싶다면 물가에 자리한 호텔에 투숙해 봐야 한다. 물은 스위스 도시의 개성과 풍경을 이루는데 단단히 한몫을 한다. 특히 여름이면 호수와 강, 계곡을 찾아 풍덩 풍덩 물 속으로 뛰어드는 스위스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이 여름을 즐기는 방식이다.

바다 대신, 바다만큼 넓은 호수가 여럿 있는 스위스는 호숫가에 리조트가 많이 발달했다. 수영장이 마련돼 있고, 스탠드 업 패들보드 같은 트렌디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선텐 전용 공간이 있고, 심지어 어떤 곳은 호텔 소유의 모터보트를 운행하기도 한다. 특히 전용 호수 공간을 마련한 호텔은 스위스 가족이나 커플에게 인기다. 이런 호텔은 호수로 이어지는 투숙객 전용 공간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호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필요한 각종 시설도 고루 갖췄다.

1. 취리히(Zurich)의 로맨틱 제호텔 손네(Romantik Seehotel Sonne)

바다처럼 드넓은 취리히 호수로 풍덩 뛰어든 기회다. 1641년부터 독특함으로 명성을 얻은 호텔이다. 취리히호수에 있는 퀴스나흐트(Küsnacht am Zürichsee)에 있는 호텔로, 역사가 깃든 슈퍼리어 4성급 호텔이다. 취리히호반과 바로 마주해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40개의 객실과 우아한 주니어 스위트룸을 갖췄는데, 과거 건축물 구조와 현대적인 요소가 흥미롭게 상호작용하며 개성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 개의 레스토랑인 손넵갈레리(Sonnengalerie)와 가슈트슈투벤(Gaststuben)이 있는데, 가슈트슈투벤에서는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스위스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세 개의 역사 깃든 객실과 웅장한 볼룸에서는 역사의 발자취를 체험해볼 수 있다.

2. 비츠나우(Vitznau)의 파크 호텔 비츠나우(Park Hotel Vitznau)

루체른 호숫가 리기(Rigi)로 향하는 기차가 출발하는 호숫가 마을, 비츠나우에도 특별한 호텔이 있다. 슈퍼리오 5성급 호텔로, 110년의 역사가 깃든 곳이다. 3년간의 레노베이션을 거치고 루체른 호숫가에 꿈결같이 품위를 드러냈다. 웅장한 파노라마 뷰와 웅숭한 서비스가 뒤따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47개의 주니어 스위트룸, 스위트룸, 레지던스 외에도 스파 공간과 야외 인피니티 풀, 호텔 전용 호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호텔 소유의 보트 정박장과 테마가 있는 스위트룸도 갖췄다. 리무진 서비스나 전세 보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3. 루가노(Lugano)의 그랜드 호텔 빌라 카스타놀라 루가노(Grand Hotel Villa Castagnola Lugano)

티치노(Ticino)주에 있는 루가노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 앞에 자리한 호텔이다. 과거 러시아의 귀족 가문이 1880년에 지은 빌라로, 지금까지도 가장 화려한 빌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래서 “세계의 소규모 럭셔리 호텔”에 속하는 호텔이다. 50개의 객실과 28개의 스위트룸 모두에서 호수와 공원의 웅장한 뷰가 펼쳐진다. 호텔에는 두 개의 훌륭한 레스토랑이 있다. “르 릴레(Le Relais)”는 미술랭 스타 1개와 고미요 점수 16점을 보유한 미식 레스토랑이다. “갈레리아 아르테 알 라고(Galleria Arté al Lago)”도



미슐랭 스타 1 개와 고미요 점수 16 점으로 빛난다. 열 개의 컨퍼런스 룸 및 이벤트 홀, 스파 시설, 실내풀, 클라랑스 뷰티 코너, 헤어스타일링 코너 외에도 호반의 투숙객 전용 테라스를 갖췄다.

4. 비츠나우(Vitznau)의 호텔 비츠나우어호프(Hotel Vitznauerhof)

감탄이 절로 나는, 심지어 공식 등재되어 있는 아르누보 양식의 호텔로, 루체른 호숫가에 바로 접해 있다. 53 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에서는 호수나 산의 웅장한 뷰가 한 아름 펼쳐진다. 슈퍼리어 4성급 호텔로, 특별한 위치뿐 아니라 다채로운 미식 메뉴로도 빛난다. 세 개의 미식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중 “센스(Sens)”는 고미요 점수 16 점을 보유한 곳이다. 파노라마 테라스, 스파, 아웃도어 월풀 및 피트니스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5. 라 레제르브 쥘네브 호텔 스파(La Réserve Genève Hotel and Spa)

레만(Léman)호숫가에 자리한 품격있는 도심 속 리조트다. 73 개의 객실과 29 개의 객실에서는 광활한 호수나 드넓은 공원의 뷰가 펼쳐진다. 화려한 빌라 뒤 락(Villa du Lac)이 보이는 객실도 있다. 디자이너 자크 가르시아(Jacques Garcia)가 우아하고 품위 있게 디자인한 장식이 돋보인다. 테라스를 갖춘 5 개의 레스토랑과 바도 있다. 3 월부터 10 월까지는 호텔 전용 수상 택시를 타고 10 분 만에 시내까지 이동할 수 있다. 2,500m²의 대형 스파 시설도 갖추었으며,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어린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6. 루체른(Luzern)의 제호텔 에르미타주(Seehotel Hermitage)

루체른 호반 커다란 공원에 있는 호텔로, 외딴곳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루체른 시내와 무척 가깝다. 모든 객실과 레스토랑, 컨퍼런스룸은 호수나 마운틴 뷰를 선사한다. 공원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쉴 수도 있어 현지인들에게 반응 좋은 호텔이다. 친근하고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중 언제나 홀리데이 분위기에 사로잡힌 호텔이다.

7. 아스코나(Ascona)의 호텔 에덴 록(Hotel Eden Roc)

낭만이 물씬 풍기는 남국의 호수, 마지오레(Maggiore)에 자리한 에덴 록 아스코나는 독특한 지중해풍 매력을 품고 있는 자그마한 보석이다. 5성급 리조트는 널찍하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레이크 뷰로 유명하다. 95 개의 럭셔리 객실 및 스위트 외에도 호텔에는 2000m²나 되는 스파가 있다. 품위 있는 스파 공간, 수영장, 사우나, 7 개의 트리트먼트 룸, 미용실의 디자인은 모두 티치노(Ticino)의 아름다움에서 유래한 것이다. 에덴 록 마리나에는 16 개의 룸, 캐주얼 레스토랑, 다채로운 수상 스포츠가 마련되어 있다.

8. 카스타니엔바움(Kastanienbaum)의 제호텔 카스타니엔바움(Seehotel Kastanienbaum)

우아한 호반 호텔로, 햇살에 부서지는 루체른 호수의 대단한 뷰를 선사한다. 42 개의 스타일리쉬한 객실 대부분에는 발코니가 있는데, 호수와 산의 전망이 펼쳐진다. 120 인을 수용할 수 있는 컨퍼런스 룸도 마련되어 있다. 레스토랑은 생선 요리를 앞세워, 클래식한 제철 요리를 선보인다. 부속 건물인 파빌리온도 매력적이다. 사우나, 증기탕, 다양한 트리트먼트, 실외 풀, 선댄 공간, 투숙객 전용 비치도 마련되어 있다. 루체른 중앙에서 10 분이면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호르(Horw) 반도에 둘러싸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쉬어갈 수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